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0월 10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정책기획팀 팀장 박재영(2110-3861), 사무관 임경숙(3869)
개발지원2팀 팀장 전종성(2110-3893), 사무관 이창원(3894)

경제자유구역, 경남권 지구개발 속도낸다

– 하동 대송산단·진해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본격 궤도진입 –

□ 정부는 10.10일 **제6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**를 개최하여 '**광양만권 경자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(안)**'을 심의·의결함

○ 사업비 문제로 공사 지연되던 **대송산단 조성사업은** 지난 5월 **프로젝트파이낸싱(PF)을 통해 총사업비의 약 78%(1,810억원)에 달하는 자금조달**에 성공함으로써

- **효율적 토지이용**(인근산단과 오폐수 연계처리)과 **공사기간 확보**(2016년 준공) 등을 위한 일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

○ **대송산단**은 **광양만권경자구역 하동지구* 내** 금남면 대송·진정리 일원 1.37㎢에 민간자본 2,383억원을 유치하여 당초 2013년 완공을 목표로 **금속가공, 운송장비 생산기지**를 조성할 계획이었음

* **하동지구 : 광양제철 생산기능과 연관된 선박관련 산업기능** 및 배후지원 기능 유치를 위해 대송산단을 비롯한 갈사만조선산단, 두우레저단지, 덕천에코단지 등 4개 단위지구로 구성됨

- 2007년 민간공동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(주)*가 자체자금 150억원을 투자하여 하동지구 내 첫 산업단지로 개발을 착수했으나, 추가 자금을 확보치 못해 **2012년 1월 공사를 중단**

* 대송산업개발(주) : 예국디엔씨, 대경건설, 케이씨씨 건설, 대한송유관 공사,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

○ 이번 대송산단 개발재개 등 하동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**낙후된 서부 경남에 신성장 동력원**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□ 동 위원회에서는 '**부산·진해경자구역 웅동지구 1공구 개발계획 변경(안)**'에 대해서도 심의, 의결하여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

○ 웅동지구 1공구는 사업부지 인근 소멸어업인의 **생계대책 민원 해소**를 위해 조성토지의 임대 및 매각이 가능토록 **사업시행방식을 민간투자(BOT)방식*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**함

*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(BOT)방식은 조성토지의 임대 및 매각 불가능

- 웅동지구 1공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매립지 2.26㎢에 경자구역내 종사자와 주민의 **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여가·휴양단지**로 개발할 계획이었음

* **웅동지구** : 전체면적 6.45㎢ 부지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하여 '18년까지 **명품관광레저단지 조성**을 목표로 1공구(여가·휴양), 2공구(물류·유통)로 나누어 개발 중임

- 1997년 부산 신항만 건설 당시부터 제기된 **피해어업인의 생계대책 보상문제**가 걸림돌로 개발이 장기 지연되었으나,

- 2012년 2월 창원시가 **조성토지를 진해·의창수협(소멸어업인 소속)에 매각하기로 협약 체결**하면서 보상문제가 타결됨

○ **부산진해경자구역의 경남측** 전체 단위개발지구 11개 중 개발완료 또는 정상추진이 7개로 작년 3개(신항북측배후지, 남양, 남문)와 비교해서 **상당한 진전**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
- 금년 들어 경남측 4곳(웅동, 두동, 보배연구, 와성)은 개발이 정상화되고 1곳(가주)이 지정해제됨

□ 또한, 위원회는 경자구역 조세감면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**전문가 평가절차 및 세부적 평가항목을 신설**하는 등 **'경자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개정(안)'**을 의결함

○ 정부는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경자위 심의·의결을 거쳐 7년형 조세감면을 추진해 옴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임경숙 사무관(☎ 02-2110-38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